

2019년 9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 속 혼조 마감 드라기 ECB 총재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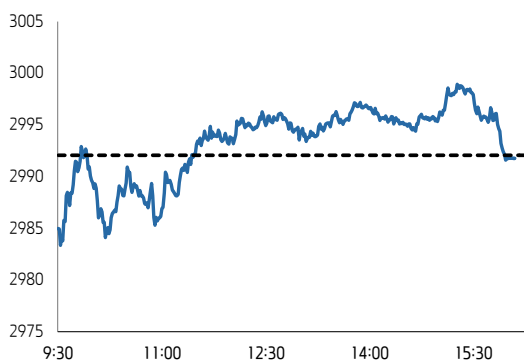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경기침체 Vs. 온건한 통화정책

미 증시는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 그러나 드라기 ECB 총재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등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반등에 성공. 특히 반도체 업종 업황 개선 기대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업종의 호재성 재료도 긍정적인 영향. 다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결국 혼조 마감(다우 +0.06%, 나스닥 -0.06%, S&P500 -0.01%, 러셀 2000 -0.10%)

독일 제조업 PMI(43.5→41.4)와 유로존 제조업 PMI(47.0→45.6)가 전월 보다 크게 위축.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 그러나 각국의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미 증시 반등에 성공. 특히 드라기 ECB 총재와 라가르드 IMF 총재,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에 힘입어 것으로 추정.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성장기 반등을 보인다는 확실한 신호가 없으며, 제조업 둔화 지속에 대한 우려 표명. 이를 감안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 차기 ECB 총재인 라가르드 IMF 총재 또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로 2020 년 글로벌 성장률이 0.8% 하향 조정 될 수 있다며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경기 부양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또한 계속되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경기 둔화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으며, 연준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의 통화정책은 작년 말보다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바뀌었다고 언급.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7% 상승하며 미 증시 강세를 이끔. 이는 크리(+3.70%)가 새로운 제조시설 건설을 위해 10 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시장에서는 크리가 상당한 자본 지출에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분석. 크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4G/5G 모바일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더불어 지난 13 일 IPO 에 성공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Cloudflare(+5.49%)가 상승세를 이어간 점도 긍정적. 한편,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실무급 회담이 건설적이라고 언급해 10 월 초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반도체 업종 상승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091.70	+0.01	홍콩항셱		26,222.40	-0.81
KOSDAQ		645.01	-0.63	영국		7,326.08	-0.26
DOW		26,949.99	+0.06	독일		12,342.33	-1.01
NASDAQ		8,112.46	-0.06	프랑스		5,630.76	-1.05
S&P 500		2,991.78	-0.01	스페인		9,093.60	-0.93
상하이종합		2,977.08	-0.98	그리스		862.59	-1.55
일본		22,079.09	휴장	이탈리아		21,899.88	-1.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97%

크라(+3.70%)가 10억달러를 투자해 제조 설비를 확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이 영향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며 마이크론(+0.90%), 인텔(+0.35%)은 물론 AMAT(+1.57%), 램리서치(+1.25%) 등 반도체 장비 업종, 자일링스(+1.55%), 쉘컴(+1.05%) 등도 동반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7% 강세를 보였다. 한편, 13일 IPO에 성공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클라우드플레어(+5.49%)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애플(+0.45%)은 아이폰 11 중 저렴한 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했다. 5G 기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영향을 줬다.

반면, 철강업체인 AK스틸(-0.82%), 철광업체인 클리블랜드 클리프(-1.68%)은 JP모건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할 여파로 하락했다.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1.84%)는 골드만삭스가 생활용품 업체인 클로락스(-1.02%)는 바클레이즈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할 여파로 부진했다. 아마존(-0.49%)은 모건스탠리가 평균 주문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며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다. 페이스북(-1.64%)은 경쟁을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독점 관련법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4%	대형 가치주 ETF(IVE)	+0.10%
에너지섹터 ETF(OIH)	+0.78%	중형 가치주 ETF(IWS)	+0.19%
소매업체 ETF(XRT)	+1.12%	소형 가치주 ETF(IWN)	+0.29%
금융섹터 ETF(XLF)	+0.21%	대형 성장주 ETF(VUG)	+0.06%
기술섹터 ETF(XLK)	+0.31%	중형 성장주 ETF(IWP)	+0.1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6%	소형 성장주 ETF(IWO)	-0.34%
인터넷업체 ETF(FDN)	-0.42%	배당주 ETF(DVY)	+0.32%
리츠업체 ETF(XLRE)	+0.3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4%
주택건설업체 ETF(XHB)	+0.1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2%
바이오섹터 ETF(IBB)	-0.87%	미국 국채 ETF(IEF)	+0.14%
헬스케어 ETF(XLV)	-0.53%	하이일드 ETF(JNK)	-0.04%
곡물 ETF(DBA)	+0.78%	물가연동채 ETF(TIP)	+0.12%
반도체 ETF(SMH)	+0.86%	Long/short ETF(BTAL)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2.76	+0.11%	-2.12%	+10.25%
소재	365.23	-0.24%	+0.53%	+6.31%
산업재	655.24	-0.18%	-1.50%	+6.70%
경기소비재	950.35	+0.23%	-0.63%	+3.71%
필수소비재	621.15	+0.36%	+0.71%	+1.59%
헬스케어	1,059.70	-0.61%	+0.61%	+3.34%
금융	467.76	+0.17%	-0.35%	+8.32%
IT	1,413.57	+0.23%	-0.27%	+4.62%
커뮤니케이션	169.98	-0.40%	-0.59%	+5.54%
유틸리티	324.50	+0.13%	+2.24%	+4.50%
부동산	243.39	+0.23%	+1.26%	+2.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5%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89 계약 순매수 했으나 0.20pt 하락한 276.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4.2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부각에도 불구하고 ECB 와 연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부각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시장에 영향을 줬던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중국 정부가 지난 주 회담 결과에 대해 건설적이었다고 주장하고, 트럼프는 이와 관련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10 월 초에 있을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다만 관련 이슈는 일부 반영이 되었던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한-미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트럼프가 대북관련 어떤 내용을 언급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스트라타 컨퍼런스가 이어지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증시에서 일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지수 보다는 종목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개선 Vs. 독일 제조업 둔화

9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전월(49.9)이나 예상치(50.1) 보다 개선된 51.0 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업 PMI 는 전월(50.9)과 변하지 않았다. 비록 제조업지표가 재차 기준선(50.0)을 상회했으나, 서비스업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점을 감안 영향력이 제한됐다.

8 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41)이나 예상(-0.06) 보다 양호한 0.10 으로 발표되었다. 3 개월 평균도 전월(-0.14) 보다 개선된 -0.06 으로 발표돼 미국 경기의 견조함을 보였다.

9 월 독일 제조업 PMI(43.5→41.4)과 서비스업 PMI(54.8→52.5) 모두 전월은 물론 예상을 하회했다. 유로존 제조업 PMI(47.0→45.6)과 서비스업 PMI(53.5→52.0)도 전월과 예상을 하회해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지속됨을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사우디 생산시설 복구가 빨라야 11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 했다. 물론 사우디는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아람코가 석유시절 장비 제조 업체와 프리미엄까지 제공하면서 긴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복구 기간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다만,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독일 경기 둔화 우려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EU 의장이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을 시사 했으나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갔다. 여전히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엔화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제금리는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 부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하락 했다. 한편, 드라기 ECB 총재와 라가르드 차기 ECB 총재는 물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온건한 통화정책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특히 단기물의 하락폭이 컸다. 장기물의 경우 미 경제지표 개선에 하락이 제한되었다. .

금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속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6%, 철근은 2.43% 강세를 보였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8.64	+0.95	-6.43	Dollar Index	98.620	+0.11	+0.01
브렌트유	64.77	+0.76	-6.16	EUR/USD	1.0992	-0.23	-0.08
금	1,531.50	+1.08	+1.32	USD/JPY	107.48	-0.07	-0.59
은	18.711	+4.83	+3.80	GBP/USD	1.2436	-0.34	+0.04
알루미늄	1,785.00	-0.56	-0.45	USD/CHF	0.9904	-0.05	-0.24
전기동	5,778.00	-0.34	-1.57	AUD/USD	0.6774	+0.12	-1.33
아연	2,331.50	+1.15	-1.42	USD/CAD	1.3259	-0.03	+0.14
옥수수	373.25	+0.67	-0.20	USD/BRL	4.1671	+0.47	+2.12
밀	483.00	-0.26	-1.18	USD/CNH	7.1122	-0.17	+0.71
대두	892.50	+1.10	-0.83	USD/KRW	1194.00	+0.51	+0.92
커피	99.00	+0.61	-5.08	USD/KRW NDF1M	1194.20	+0.10	+0.8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18	-0.34	-12.86	스페인	0.145	-8.70	-10.90
한국	1.470	+1.30	-7.00	포르투갈	0.170	-7.40	-9.70
일본	-0.207	휴장		그리스	1.313	-1.70	-21.30
독일	-0.581	-6.00	-10.10	이탈리아	0.828	-9.30	-1.30